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물가 전년 대비 2.6% 상승...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
- FinanceYahoo: 달걀, 고깃값 등 식료품비 상승

[미국 금융]

- Bloomberg: 인플레이 예상치 부합하면서 트레이더들, 12월 금리 인하 베팅
- NYT: 트럼프 승리에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 FinanceYahoo: 미국 이외의 글로벌 금융 시장은 타격 입어
- WSJ: 연준 이사 Waller, “연준은 결제 시스템을 지원만 해야”

[뉴욕시]

- Bloomberg: 연방 대법원, 뉴욕시 임대 통제법 그대로 유지하기로

[주택]

- Bloomberg: 트럼프 승리 후 미 모기지율 상승세 계속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정부효율부’에 머스크와 라마스와미 선정

[글로벌 경제]

- CNBC: 일본, 반도체 산업 다시 살린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개인 명품 시장 위축... 2008년 이후 처음
- Bloomberg: 아시아 항공사들 “공급망 때문에 평판 나빠졌다”
- TechCrunch: DeepL,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는 DeepL Voice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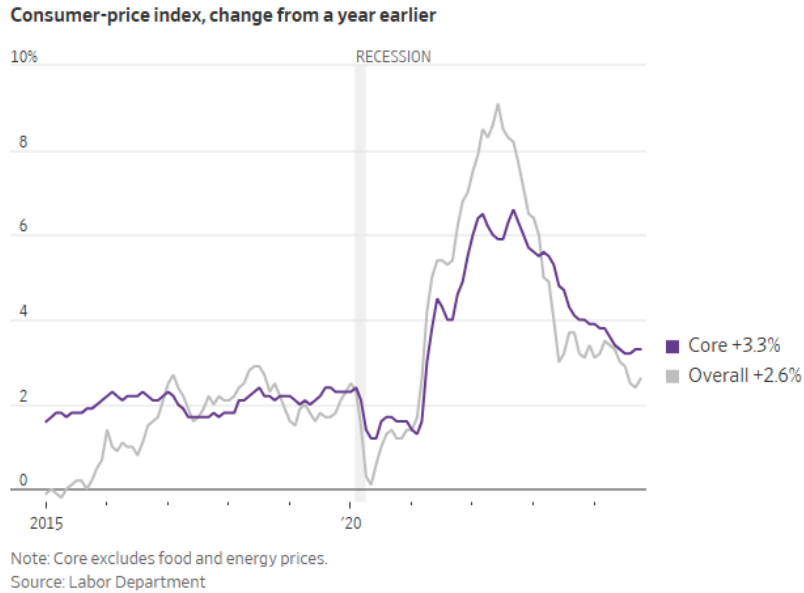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Inflation Picks Up to 2.6%, but Door Stays Open to Fed Rate Cut 미 물가 전년 대비 2.6% 상승...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

- 오늘 수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9월에 물가가 2.4%를 기록했던 때보다 상승한 것이다.
- 그러나 전반적인 인플레이를 보다 잘 반영하는 핵심 물가(식품과 에너지 품목 제외)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3.3% 상승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이 같은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부합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오는 12월에 금리를 한차례 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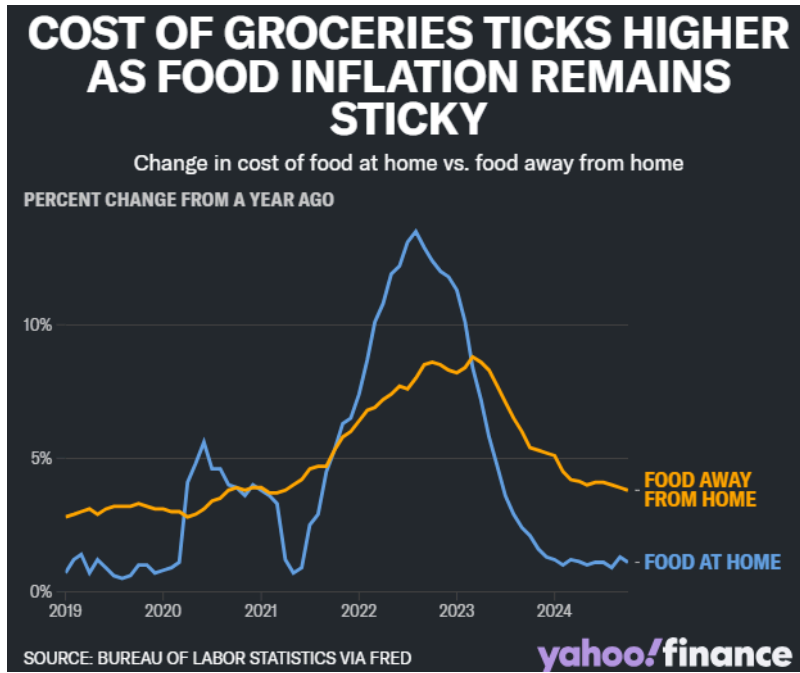


WSJ 기사

FinanceYahoo: Food inflation ticks higher as egg, beef prices remain elevated

달걀, 고깃값 등 식료품비 상승

- 연방 노동부 통계국에 따르면 10월 미 식품 물가가 작년 동월에 비해 1.1% 상승했다. 9월과 비교하여 0.1% 상승했다.
- 전체 식품 카테고리의 물가는 2.1% 올랐다. 3.8% 상승한 외식 비용에 이에 영향을 주었다. 임금 상승이 식품 비용에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식당 외식 비용 상승이 식료품 비용 상승을 앞질렀다.
- 한편 변동성이 큰 달걀값도 식품비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달걀값은 연간 비율로 30.4% 상승했다. 월간 비교로는 다행히 6.4% 감소해 지난 4월 이래 하락폭이 가장 컸다. A급 달걀의 경우 올해 초에 2.52달러에서 9월에는 3.82 달러로 상승했다. 10월에는 3.37달러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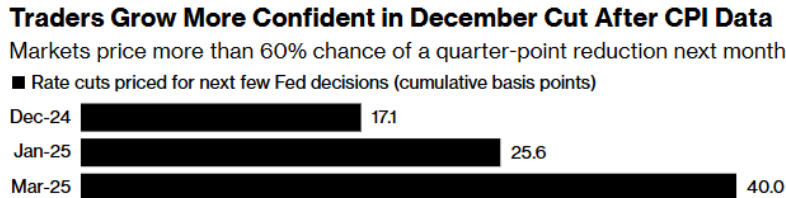


FinanceYahoo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aders Boost Bets on December Fed Cut After In-Line Inflation
인플레 예상치 부합하면서 트레이더들, 12월 금리 인하 베팅

- 오늘 수요일 미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자 트레이더들이 12월 0.25%의 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국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이 있는 2년물 국채 금리는 7베이스스 빠진 4.27%를 기록 중이며, 10년 국채 금리는 4 베이스스 포인트 낮은 4.39%에 거래되고 있다.
- 스왑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12월 18일 금리 인하 확률을 75%로 올렸다.



Source: Bloomberg
Note: Data as of 8:31 a.m. ET, Nov. 13

Bloomberg 기사

NYT: Why Trump's Victory Is Fueling a Market Frenzy
트럼프 승리에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 트럼프가 승리하자 투자자들이 규정 완화를 기대하면서 은행 주가가 상승했다.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인수 합병이 가로막히거나 제한되어 온 많은 대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주식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트럼프가 지지하는 비트코인도 급등하고 있다.
-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왔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그린 에너지 회사들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매업체들과 제조업체들 또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의 예상되는 관세 정책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2년간의 기업들 실적 예상치도 일부 분석가들은 상향 조정하고 있다. 법인세 하향 예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물론 트럼프의 무역, 이민, 금융 정책 등에 대한 방침으로 인해 일부 월가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전망을 우려하고 있다.

NYT 기사

FinaceYahoo: Rest of World's Markets Broken By Trump's America-First Plan

미국 이외의 글로벌 금융 시장은 타격 입어

- 트럼프 승리 후 미 주식 상승과 달러 가치의 2년 이래 최고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금융시장 증시는 흔들리고 있다.
- 글로벌 주가 지수인 MSCI는 지난 3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발 도상 시장 통화 지수도 미 대선 후에 1% 이상 빠졌다.
- 유럽 증시와 유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예상되는 높은 관세, 높은 인플레이, 중앙은행들의 자율성 저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돈이 미국 자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FinanceYahoo 기사

WSJ: Fed's Waller Says Central Bank Should Limit Its Role in Payment Systems

연준 이사 Waller, “연준은 결제 시스템을 지원만 해야”

- 연준 이사인 Christopher Waller는 연준은 결제 시스템 인프라에서 최소한의,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하고, 주로 민간 부문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민간 기업들이 고객들을 위해 최상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혁신하고 경쟁해야 하며, 반면에 연준은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결제 관련 이슈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객을 사로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는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했다.

WSJ 기사

[뉴욕시]

Bloomberg: New York Rent-Control System Survives Challenge at Supreme Court
연방 대법원, 뉴욕시 임대 통제법 그대로 유지하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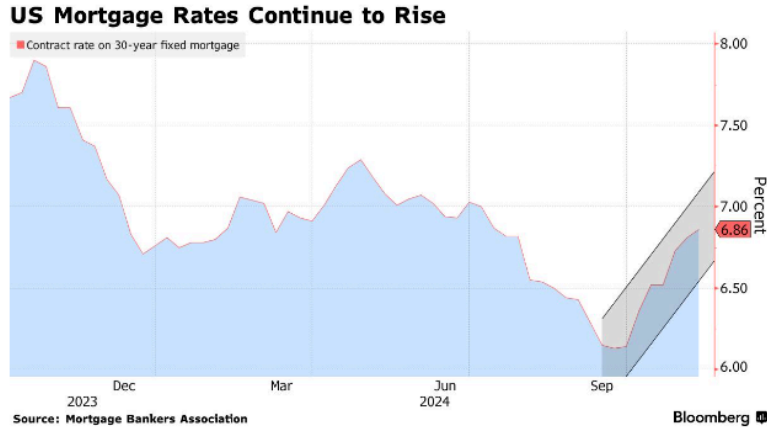
- 뉴욕시 아파트 건물주들은 아파트를 개인 용도로 회수하거나 콘도나 코압으로 개조하는 것을 거부해 온 정부의 제한 조치가 건물주들의 헌법적인 권한을 거부한다며 항소했었다.
-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 같은 건물주들의 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건물주들은 보상 없이 정부가 민간 소유 건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해왔다.
- 한편 뉴욕시 임대 안정법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197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매년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Rose Again in Week After Trump's Victory
트럼프 승리 후 미 모기지율 상승세 계속

-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미 모기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율은 5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6.86%를 기록했다. 7월 이후 최고치다.
- 또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율은 지난 6주 동안 72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 모기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연준이 강한 경제 지표를 보고 향후 몇 달간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 인플레이와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
- 모기지은행협회 채용자 지표는 7주 연속 하락했다. 2022년 4월 이후 가장 긴 하락 기간이다. 주택 구매 신청은 다소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Trump Picks Musk, Ramaswamy for Government Efficiency Effort

트럼프, '정부효율부'에 머스크와 라마스وام이 선정

-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와 기업가 Vivek Ramaswamy를 새로운 정부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 것이라고 화요일 발표했다.
- 새로운 정부효율부는 정부의 관료제 해체, 과도한 규제 축소, 낭비적인 지출 삭감, 연방 기관 구조 조정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는 이 위원회가 백악관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협력해 2026년 7월 4일까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머스크는 지난달 트럼프 집회에서 연방 예산 중 최소 2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정부는 6.75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그중 5.3조 달러 이상이 사회 보장, 건강 관리, 국방, 군인 혜택에 쓰였다. 해당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Ramaswamy는 트럼프의 연방 정부 규모 축소, 외교 동맹 후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지지해 왔다. Ramaswamy는 주요 경선 토론에서 트럼프의 경쟁자들을 공격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자이자 적극적인 대변인이 되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CNBC: Japan is ramping up efforts to revive its once dominant chip industry

일본, 반도체 산업 다시 살린다

- 일본이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030년 회계연도까지 10조 엔(650억 달러) 이상

의 지원을 언급했다.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계획은 11월에 확정될 종합 경제 패키지 (comprehensive economic package)의 일환이다.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은 보조금, 정부 기관 투자, 부채 보증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 2030년까지 일본산 반도체 매출을 3배 증가한 15조 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Personal luxury goods market to shrink for first time since the 2008 financial crash, research finds 개인 명품 시장 위축... 2008년 이후 처음

- 베인앤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제 둔화가 소비자 지출에 부담을 주면서 올해 개인 명품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컨설팅사인 베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비용 상승과 고객 충성도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명품 소비를 줄이면서 회사 수익이 감소하고, 전체 명품 산업이 연간 2%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수요 약화로 인한 매출 감소가 크다.
- 이제 명품 브랜드들은 번덕스럽고 젊은 소비자층을 사로잡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베인앤컴퍼니 파트너 Claudia D'Arpizio는 “지난 2년 동안 5천만 명의 명품 소비자가 시장을 떠났다. 고객, 특히 젊은 고객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놀라고 기쁘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Bloomberg: Asian Airlines Say Supply Chain Woes Are Giving Them a Bad Rap 아시아 항공사들 “공급망 때문에 평판 나빠졌다”

- 아시아 항공사들이 새로운 항공기 배송 지연, 예비 부품 부족 등 운영상 문제 때문에 평판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 세계 항공사들은 에어버스와 보잉의 항공기 배송 지연 때문에 구형 항공기를 더 오래 운항해야 했으며, 예비 부품 부족으로 항공기가 수리 대기 중인 채 격납고에 주차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즉, 공급망 회사 때문에 평판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 말레이시아 항공의 CEO Izham Ismail은 “항공사들이 저조한 한 자릿수 이익을 낼 때, 공급망 회사들은 두 자릿수 이익을 내고 있다. 공정하지 않다.”

코로나 이전엔 엔진 수리에 25일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100일 이상 걸린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TechCrunch: DeepL launches DeepL Voice, real-time, text-based translations from voices and videos

DeepL,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는 DeepL Voice 출시

- DeepL은 세밀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유명한 독일 스타트업이다. DeepL은 이번에 실시간으로 다른 언어의 말을 번역할 수 있는 DeepL Voice를 출시했다. DeepL Voice는 영어, 독일어, 한국어 등 13개 언어를 듣고 자막 형식으로 번역을 제공한다.
- DeepL의 주요 경쟁사인 구글도 실시간 번역 자막을 Meet 화상 회의 서비스에 추가하고 있다. AI 음성 전문 스타트업 Eleven Labs와 Panjaya는 딥페이크 음성과 비디오를 이용한 음성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DeepL Voice는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다. 기존 자막 번역 대신 음성 번역 제공,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공, 다양한 통합 기능 제공 등 발전의 여지가 있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내년 국제유가 40달러까지 내려갈수도...트럼프 무역전쟁도 변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가 기존의 감산 조치를 해제하면 국제유가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가 정보업체 OPIS의 글로벌 에너지 분석 책임자인 톰 클로자는 "아랍의 봄 이후 그 어느 해보다 2025년 유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OPEC이 (감산을) 풀고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배럴당 30달러 또는 4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지면 현재 원유 가격이 약 40% 하락하는 셈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